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com ● FAX: (0343)470-3116

법공양 페이지

苦는 근본으로 이끄는 주인공의 손짓

그림 · 최주현

나 이끌고 가는 자성줄 놓지말고 살아야 일체생명 더불어 살기에 나는 空한 존재

간염을 10년째 앓고 있어요

문 스님, 저는 10년 가까이 간염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데 그 병으로 인해 많은 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초심자인 제가 앞으로라도 이 일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주인공자리에 놓고 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10년 가까이 병을 앓았으니 그 고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만, 자성(自性) 부처님은 견딜 만큼의 시련으로써 나를 기르고, 계발시키며, 가르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에게 닥쳐온 공부의 과제를 남에게만 해결해 달라고 한다면 더 이상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이 몸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지만 생명의 근본이 없다면 어떻게 움직이고 살겠습니까. 그냥 송장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의 근본, 자기의 영원한 근본을 믿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되어야 하고 저렇게 되어야 한다고만 하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떻게 되려고 하지 마세요. 뜰 앞에 나무가 뿌리더러 하는 소리가 "뿌리야 뿌리야, 너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누렇게 떴으니 네 싹을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려라." 하고 말을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하는 소리가 "너가 나를 알고 있었니?" 하면서 "그러면 내가 모든 영양분을 올려 보내마 " 하고 좋아하더니만 싹이 푸르러졌다고 하듯이, 그렇게 간절히 믿고 맡겨놓으세요.

지금 내 앞에 닥친 병고와 액난이, 나를 근본으로 향하게 하려는 주인공의 손짓임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오게 한 근본에 되돌려 놓으십시오.

우주탑이 7층인 까닭

문 저는 절에서 어린이 법회에 나가는 학생입니다. 평소에 집에서 한마음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곤 하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갈 때마다 황금빛으로 된 7개의 둥근 원이 올려져 있는 탑이 그려진 화면을 보곤 합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무슨 뜻으로 저렇게 해놨을까 하는 생각에 '주인공, 저것이 왜 일곱 개인지 너만이 알게 할 수 있잖아' 하고 관을 하며 해답을 찾으려 했지만 좀처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절 위에 공 같은 것이 왜 있는지, 또 제가 관하는 것이 틀렸는지, 만약 틀렸다면 어떤 점에서 틀렸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답 어린이 법회에 나오는 어린 학생인데 그런 질문을 하는 걸 보니 평소에 법회에 와서 스님과 선생님들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군요. 그래요, 선원 지붕 위에 있는 금색의 탑을 우주탑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칠탑인 우주탑은 우리의 몸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깐 둥근 원을 일곱 개의 탑으로 올린 것은, 공부하는 분들이 어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성취하라고 방편으로 세운 겁니다. 방편이라는 말 알죠? 그런데 방편 아닌 방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응신으로 동시에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계의 통신처라고도 합니다. 글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학생은 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소한 것까지 놓치지 않고 질문하는 것을 보면 아주 현명해서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주인공 공부도 열심히 할거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아무튼 열심히 해요.

사람마다 다른 삶 사는 이유

문 저는 윤회나 전생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만 왜 사람들은 각기 차이가 나는 생을 살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은 아프지 않고 살고 어떤 사람은 아프면서 살기도 하는 등 별의별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이 되기까지는 육도만행을 다 거쳐야 하고, 육도 중생의 길을 다 겪어야만 합니다. 지옥에서 나와도 그렇고, 또 아귀 축생에서 나와도 그렇고 모두가 연결해서 다 돌아가죠. 떨어지는 놈은 떨어지고 올라오는 놈은 올라오고 해서 연방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섯 단계를 돌고 돌아서 즉고 또 태어나고 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에 그렇거든요. 아귀나 축생, 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인간되기 이전에도 수천번, 그 모습을 벗지 못하고 그대로 수없이 피를 토하고 수없이 죽고 그러다가 한 찰나에 그냥 바뀌어 돌아가면 그것이 바로 인연 따라서 그 마음이 아주 한 찰나에 돌면서 환생이 되는 거거든요. 인간으로서 화할 때에는 한 찰나에 화하게 되죠.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 최고의 과정인 인간이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벗어나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각기 다른 생들이 그냥 주어지는게 아니라 각기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저 뭐든지 나쁘게 쓰려고 애쓰지도 말고 좋게 쓰려고 애쓰지도 말고 스스로 그냥 잘 이끌어 가면은, 자기 몸을 자기가 이끌어 간다면은 참 좋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근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모르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마음이 흔들려서 거기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고정됨이 없이 돌아간다는 것이 바로 윤회인데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보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듣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가고 오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먹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만남도 고정됨이 없습니다. 무엇이 고정됨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군데만 보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전부, 어느 것 하나 고정된 것이 없어요.

자식이었을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부모일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또는 남편이나 아내일 때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것을 먹을 때 내가 먹었다고 하며 어느 것을 할 때 내가 했다고 하겠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한 사람이 몇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를요. 쉴 사이 없이 돌아가면서 바뀌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런 생각이 또 나거든 본인이 하루를 살면서 쉴새없이 얼마나 바뀌어 돌아가고, 또 주위의 사람들도 얼마나 제각기 살고 있는지를 가만히 지켜보세요. 그러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죽어가는 동물을 위한 관법

문 요즘 TV를 통해서 보면 야산 등지에서 밀렵이 아주 성행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올가미에 걸려 살고자 발버둥치고 있는 동물들이나 아니면 즉은 채로 냉장고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들도 가끔씩 보도되곤 하는데요, 제가 동물을 참 좋아해서 그런 동물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자기의 차원대로 살고 죽고 하지만, 그런 동물들을 볼 때 어떻게 마음을 내야 하는지 어떻게 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일체의 모든 것, 즉 이 우주 천지의 모든 것들이 나온 근본이, 바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직결되어 있음을 알고, 그 직결되어 있는 마음의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다 모든 것을 되맡겨 놓아야 합니다. 진실히 맡겨 놓을 때, 즉 그 짐승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인과응보가, 나은 그 자리에다가 다시 믿고 맡겨 놓는 동시에 그것이 연결이 돼서 그 등물도 옷을 벗고 인도환생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인공 당신만이 그 짐승들이 보다 진화된 몸 받아서 마음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다' 하고 지극하게 맡기신다면 간절한 그 한 생각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들의 마음에 불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 한 생각이 과연 그럴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생명을 사랑하는 자비스런 그 한 생각 한 생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일체와 직결된 내 안에 모두 놓아나간다면 전부 재생이 되어 나옵니다. 그러니 오직 내 안의 통신처를 믿고 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생활하는 속에서 다가오는 인연들을 자비롭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아름답고 소중한 결실로 피어날 겁니다.

먼저 마음공부 하고 싶어요

문 저는 올해에 17살이 되는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기술자가 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불교나, 기독교, 여러 가지 종교를 대하고 또 철학을 공부하다보니 그 내용이 재미있으면서도 거기서 나오는 문제들을 풀어보고 싶기도 하고, 제가 나름대로 이론을 만들기도 해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대하기 전에는 기술자 말고, 다른 직업을 꿈꾸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종교공부와 철학공부가 저를 달라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평소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단전호흡도 수련하게 되었구요. 그리고 어제는 달마에 대한 TV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로 저런 조용하고 평온한 곳에서 평생동안 종교공부를 하고 명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대입을 위해 수능시험을 봐야하는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궁금해요. 대학교까지 다 나오고 군대를 갔다 와서 종교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것일까요?

답 물론 학생이 생각하는 길이 틀리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을 구성하는 보이지 않는 50%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노릇일 겁니다. 하지만 나는 항상 여러분한테 생활이 공부라고 했습니다. 생활이 교재라고 했습니다. 불교라는 말도 그냥 종교의 이름이 아니라 '불' 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본을 말하고 '교' 라는 것은 생활,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공부라고 굳이 말을 할 것도 없이 우리가 항상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 원인이 어디느냐? 사람은 살면서 내 근본의 줄을 항상 놓치지 않고 가야 합니다. 즉 나를 이끌고 가는 이것은 나의 근본이기 때문에 움죽거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산에 올라가는데, 천야만야한 산을 타는데 줄이 없으면은 올라갈 수가 없죠. 우리들 제각기 줄이 본래 다 있습니다. 움죽거리지 않는 근본을, 그걸 잡고 그 언덕을 넘어서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 줄은 누구나가 다, 어려웁게 살든 못났든 잘났든 가난하든 이걸 떠나서, 하다 못해 물에서 노는 고기들도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삼·부·농·산·은·슈·기·재·배·약·초·만·을·생·산·하·고·있·습·니·다.

97.11.6/99.9.2 MBC-TV '고향은 지금'
99.9.24 KBS-TV '6시 내고향'
99.7.10 SBS-TV '모닝와이드 방영'

자연은 거짓이 없습니다!

무병장수를 바라는 마음 황토삼백초에 의지하십시오 …

신묘장구대다라니 150만 독을 지송하고
찾아낸 약초 **황토삼백초**
7년을 정성들여 생산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대신주 위신력은 마른 나무 가지에 싹이나서 열매가 열리게하거늘 하물며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일체 환고는 이 다라니로 고치지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라니와 더불어 유기재배한 약초로 효과가 뛰어나도록 하였습니다.

■ 삼불초의 놀라운 성분들 ■

황 토삼백초에는 '수용성 탄닌' 플라본계 물질, 유효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를 맑게하여 혈행을 돕고 모세혈관을 보호하며, 강력한 이뇨작용으로 체액순환과 해독작용을 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또 장의 연동력으로 숙변 등 몸안의 노폐물을 신속히 제거하고 변비를 없애줍니다.

■ 이런분들께 좋습니다 ■

▶ 항상 머리가 개운치 않고, 의욕이 없으신분
▶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
▶ 숙이 편치 않으신 분
▶ 통변이 시원치 못하신 분
▶ 피부미용과 여성질환으로 고민하시는 분
▶ 식수공해가 걱정되시는 분
▶ 팔다리가 아프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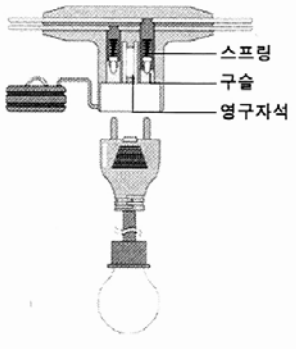
大悟居士
(김봉서 원장)

차나 숭늉처럼 드시고 자주 많이 드셔도 좋습니다.
황토삼백초는 믿을 수 있습니다. 손님 접대나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삼 부 농 산
SAM BU Farrm
경남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 0598)945-0075~7 http://www.teafarm.com

연등 배선의 혁신

연등배선의 혁신
새로운 방식(자석식)의 제품으로
연등배선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 일체형도 생산합니다.

안전하게 제작에서 「시공」 까지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규 격
· 법당용 - 30cm, 40cm, 50cm
· 외부용 - 1M, 1.5M, 2M, 3M
※ 주문시 간격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용도 · 사찰 연등용

특 징
1. 불자 기업으로서 권 표시를 하였습니다.
2. 자석의 특성을 살려 배선의 설치 및 수거가 용이 합니다.
3. 영구자석을 사용하였으므로 자력이 강합니다.(자력2.5Kg)
4. 접촉불량이 없으며 감전의 위험이 없습니다.
5. 한국 · 일본 동시 특허 출원
6. 기존의 제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자석식)의 제품으로 사찰용도 전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 시공시 조광기를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생각하는 기업
S2 신성
서울시 도봉구 창1동 667-117호
TEL: 02)993-8903~4 / H.P: 011)367-3786
FAX: 02)993-8905
공장 0341)988-1688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마송리 14-22